

전자산업 동향과 2004년 전망

최영훈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이사

올해 전자산업은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성장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왔다. 국내외로 과중한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의 증가, 태풍 '매미'로 인한 수출 차질,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노조와의 불화 등 국내 위협요인과 대외적으로 이라크전쟁 발발, 북핵문제, 사스 발생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신제품 개발의 노력은 전자산업 수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세계경제전망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점차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내년에는 전반적인 경기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경제는 저금리와 강세정책, 조세환급 등 경기부양책 시행과 소비와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3% 이상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특히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으로 IT경기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전망

국내경제는 3분기에 들어서면서 수출증가에 힘입어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높아지는 등 외관상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도 하반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반기의 -0.7% 성장률보다 개선된 것이다.

또한 설비투자도 상반기 0.4%, 하반기 2.0% 증가세를 보이면서 연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경제도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수출의 증가와 함께 내수가 다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연간 4.3%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 수출이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7%대를 지속하면서 견실한 성장을 보여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증가, 노사대립, 총선을 전후로 한 정치 혼선 등 국내 불안요인이 내재하고 있어 내수경기 회복에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수출=올해 내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2.7%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휴대폰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와 디지털가전 등 디지털기 품목이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산업을 이끌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휴대폰을 포함한 무선통신기기(39.8%), 위성방송수신기(26.3%), 홈시어터(32.4%), 세탁기(40.3%), 반도체(14.9%) 등 주요 전자품목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데 힘입어 지난해 보다 19.6% 증가한 598억달러에 이르렀고 무역수지도 23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출은 두자릿수 성장세를 이어 갈 것이며 컬러폰, 카메라폰 등 고성능 제품과 경기회복에 더불어 PC 수요도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노트북 PC 경우 가격 인하 및 무선랜서비스의 확대로 정보통신산업 수요 시장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가전도 올해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과 경기회복 등 내수, 수출 모두 성장을 예상하며 메모리반도체는 호황국면을 진입하여 D램 및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가 증가해 내년에는 일부 공급 부족 현상까지도 예상된다.

◇업계의 전망지수=이같은 전망은 지난달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 전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전자산업경기전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조사응답업체 중 46.8%가 내년도 생산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3.8%는 크게 호전될 것으로 답해 대다

수 업체들이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요인으로 43.7%가 수출증가, 21.4%가 내수증가를 각각 들었다.

내수는 9.3%가 크게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39.5%는 다소 호전, 36.4%는 변화 없음이라고 답해 대부분 업체들이 올해에 비해 점진적인 성장세를 예상했으며, 반면 14.0%는 다소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견해를 표했다. 성장요인으로는 49.1%가 신제품 시장확대, 23.1%가 소비심리 확대를 각각 들었다.

내년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53.4%는 다소 증가하고, 9.5%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답했고, 33.7%는 금년 수준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수출증가(40.5%), 시장점유율 확대전략(32.4%), 정부정책지원 효과(107%) 등이 주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업계의 긍정적인 전망처럼 2004년도 전자산업은 기술 발전 및 디지털컨버전스가 되어감에 따라 더욱 고도로 성장할 것이며 신규 시장창출 및 세계 IT산업의 본격적인 회복으로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증가해 수출은 전년대비 16.1% 증가한 859억달러, 내수는 전년대비 10.2% 증가한 9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분야별 전망

분야별로는 정보통신산업용기기는 중국, 유럽의 GSM 단말기 시장 확대와 미국의 경우 cdma2000-1x 도입 및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등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컴퓨터 수요도 그동안 경기침체로 지연됐던 PC교체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노트북은 데스크탑 대체수요 흡수, 모바일 환경 확산 등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추세다.

가정용기기는 미국시장이 되살아나고 디지털방송시대에 접어들면서 디지털가전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LCD TV, PDP TV, 프로젝션 TV 등 디지털 TV와 에어컨의 경우 빌트인,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수

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양문형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프리미엄 제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홈쇼핑 및 대형할인점 등 신유통 체계의 확산으로 수요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자부품은 주력 수출 품목인 D램, S램, 플래시메모리 등 반도체 가격의 안정화와 미국 IT산업 수요 회복 및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수요가 확대 되면서 반도체 산업이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도체는 PC 를 비롯한 디지털가전,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 다양한 전자제품의 후방산업으로 관련 IT제품의 수요 상승에 따른 수요확대가 예상되며 PCB 및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관련 부품도 호조를 나타낼 전망이다. ●

정보통신·산업용 기기 수급동향

(단위 : %)

구 분	2002년		2003년 10월		2003년	
	계	증감률	계	증감률	계	증감률
수출(백만불)	28,171	23.6	28,590	25.6	35,721	26.8
내수(십억원)	28,664	-3.3	24,592	6.4	30,384	6.0
생산(십억원)	47,396	10.5	45,037	17.7	56,022	18.2
수입(백만불)	12,826	2.4	11,566	11.8	14,378	12.1

디지털 가전기기 수급동향

(단위 : %)

구 분	2002년		2003년 10월		2003년	
	계	증감률	계	증감률	계	증감률
수출(백만불)	10,760	11.0	10,287	14.0	12,460	15.8
내수(십억원)	12,302	12.4	10,649	-0.6	12,327	0.2
생산(십억원)	22,004	8.8	19,954	5.3	23,412	6.4
수입(백만불)	3,008	19.9	2,830	15.3	3,399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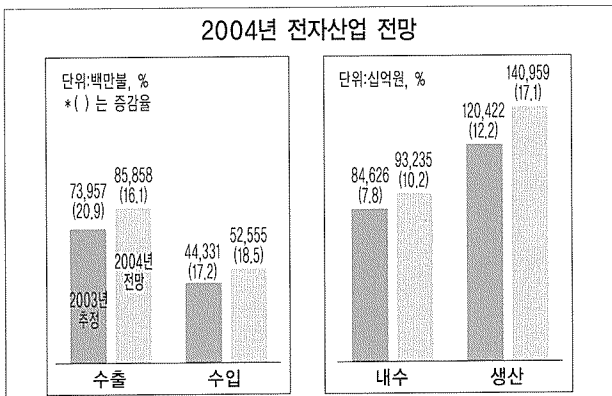
전자부품 수급동향

(단위 : %)

구 분	2002년		2003년 10월		2003년	
	계	증감률	계	증감률	계	증감률
수출(백만불)	22,240	15.5	20,932	15.0	25,776	15.9
내수(십억원)	37,559	22.7	33,741	11.2	41,916	11.6
생산(십억원)	37,881	25.5	33,395	8.1	40,987	8.2
수입(백만불)	21,982	12.2	21,549	21.3	26,554	20.6

* 자료 : EIAK(생산·내수), 관세청(수출·수입)

2004년 전자산업 전망



품목별 전망

(단위 : 수출·수입 : 백만달러, 내수·생산 : 십억원)

구 분	2003(추정)				2004(전망)			
	수출	내수	생산	수입	수출	내수	생산	수입
정보통신	35,721 (26.8)	30,384 (6.0)	56,022 (18.2)	14,378 (12.1)	42,008 (17.6)	33,939 (11.7)	68,235 (21.8)	15,787 (9.8)
가정용기기	12,460 (15.8)	12,327 (0.2)	23,412 (6.4)	3,399 (13.0)	14,105 (13.2)	13,165 (6.8)	27,065 (15.6)	3,814 (12.2)
전자부품	25,776 (15.9)	41,916 (11.6)	40,987 (8.2)	26,554 (20.8)	29,746 (15.4)	46,191 (10.2)	45,660 (11.4)	35,954 (24.1)
합 계	73,957	84,626	120,422	44,331	85,858	93,295	140,959	52,555

* ()는 증감률, %